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5월 26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 당 자	•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440-2981 • 담당자 김봉희 ☎440-298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5월 가정의 달 맞이 “초로기 치매 다큐영화 감독과의 대화의 장” 마련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치매환자와 돌봄 가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초로기 치매 다큐영화 ‘1포 10kg 100개의 생애’ 상영 및 감독 초청 -
- 증가하는 초로기(65세 미만) 치매환자와 젊은 부양자 ‘영케어러’ 돌봄에 주목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관한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에 치매 돌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치함께 시네마’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고전 가족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하고, 초로기 치매 다큐영화 ‘1포 10kg 100개의 생애’ 상영과 함께 초로기 치매환자의 보호자이자 영화감독인 조기현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

‘1포 10kg 100개의 생애’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상

영작으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고, 점점 사라질 아버지의 노동과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다. 조기현 감독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로, 책에는 영화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가정사, 아버지의 치매 증상과 일화들을 상세하게 수록하며 아픈 부모를 모시는 젊은 부양자인 영케어러(Young Carer) 가시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도 상병비율이 가장 높은 초로기(65세 미만 치매환자 비율 13.9% VS 전국평균 10.7%. 추정 환자 수 5,618명) 치매환자들을 위해 전담 센터를 운영하는 등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치매 가족의 돌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영케어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감독 초청 이벤트를 마련했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치매환자와 돌봄 가족, 지역주민이 영화를 즐기고, 치매 돌봄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좌절감이 크다. 가치함께 시네마를 통해 초로기 치매환자와 가족이 세상 밖으로 한걸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는 인천 송현동 소재 인천미림극장에서 매월 1회 운영되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원칙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진단 이후 문화·여가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행복한 경험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있다.